



고향 바다에서 자유롭게 유포하는 '제들이' 지난 2013년 7월 고향 제주바다로 돌아간 돌고래 '제들이'가 24일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도로 앞에서 남방큰돌고래와 함께 자유롭게 유포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등지느러미에 새겨진 1번 표시가 선명하다. 강희만기자

## 전기차 보급계획 코로나에 '발목'

내년 전기차 보급 1만5378대 → 6377대로 급감  
코로나19 장기화·재정악화 등 여건 변화 영향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전기차 보급 계획이 코로나19에 발목을 잡힌 모양새다. 24일 본지 취재 결과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재정상황 악화, 구매 혜택 축소 등 보급 여건이 열악해진 상황을 반영해 내년도 전기차 보급 목표 대수를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할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제3차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2020~2030년)상 2022년도 전기차 보급 목표 대수 1만5378대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목표 대수를 58.5% 가량 줄인 6377대(누적 2만9804대)로 잡고 보급을

추진한다. 제주도의 제3차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르면 전기차 누적 보급 목표 대수는 지난해 3만2428대, 올해 4만4244대, 내년 5만9622대다. 이후 2030년 37만7217대, 도내 전기차 점유율 75% 달성을 계획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전기차 관련 예산 감소 등 보급 정책 추진 여건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목표 달성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당초 계획 대비 전기차 보급 실적은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당초 계획 대비 1만1142

대 미달된 2만1285대로 파악됐다. 도는 지난해 초 전기차 8761대를 민간에 보급하겠다고 고시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예산이 삭감돼 3차례 재공고를 거친 끝에 최종 3600대로 변경, 보급했다.

올해 역시 당초 중장기 계획상 목표 보급 대수였던 1만1817대에서 7525대 줄어든 4292대로 공고됐다. 누적 보급 대수 계획 역시 당초 4만4244대 대비 1만9639대가 미달된 2만4605대로 줄었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삭감, 보조금 축소 등으로 보급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중장기 종합계획상 내년도 전기차 도입 목표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전기차 관련 소비자들이 지원 받는 보조금 액수는 국비와 도비를 합쳐 2018년 1800만원에서 2019년 1400만원, 지난해 1320만원으로 매해 축소됐

다. 올해 보조금 지원 규모는 1250만원(국비 800만원·도비 450만원)으로 더 떨어졌다.

정부·지자체 보조금이 모두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 실구매가가 상승해 전기차 구매 유도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까지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이에 도는 내년도 전기차 목표 점유율 7.1%, 목표 보급 대수 6377대(누적 2만9804대)로 조정해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2030년 37만7000대 목표 달성을 위해 중장기 계획과의 차이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했다"며 "전기차 보급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년도 점유율 7%를 보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축산물 HACCP 시설지원사업' 본격 추진

올해 1억6700만원 투입  
도, 6개 업체 선정·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도내 축산물 위생도 제고 및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인증 업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도내 축산물가공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축산물 HACCP 시설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축산물 HACCP시설지원사업에 총 사업비 1억6700만원(보조 1억, 자부담 6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사업공고와 사

업신청 접수 완료 및 보조금 심의를 거쳐 6개 업체를 최종 대상으로 확정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도축업, 집유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및 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식육가공업에 대해 HACCP 인증을 의무화 하고 있다.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모든 식육가공업에 대해 HACCP 인증이 의무화된다. 식육포장처리업체도 2023

년부터 단계적으로 HACCP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축산물 관련업체의 HACCP 인증 의무화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 관련 의무대상 축산물 영업자는 HACCP 인증 및 준비에 만전에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다혜기자

## 한라산 구상나무 유전자로 이력 관리 산림청, 복원지 적합 개체 선발 기술 확보 성공

기후변화 등으로 사라지고 있는 구상나무 유전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복원이 이뤄지며 주목을 받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구상나무 DNA 식별표지(마커)를 이용한 분석으로 나무마다 유전 특성을 분석해 대상 지역에 적합한 개체를 확보하는 DNA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 이를 통해 복원이 필요한 지역에 가장 적절한 개체를 선발하는 기술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이 DNA 이력관리를 적용해 경상남도 거창 금원산에 복원시험지를 조성한 결과 어린 구상나무 생존율이 99%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상나무는 지난 2011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위기종으로 분류한 나무로 신생대 3기부터 수백만년 동안 혹독한 환경을 견디면서 우리나라 산의 정상부, 해발고도 1000m 이상에 적응한 특산수종이다. DNA 이력 관리를 적용하는 복원

이 위기에 처한 한라산 구상나무 자생지 복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가 지난 2015년 조사결과 한라산 구상나무림의 전체면적은 626.0ha로, 2006년 738.3ha에 비해 10년 동안 15.2%인 112.3ha가 감소했다.

제주도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 구상나무를 살리기 위해 구상나무 자생지 식생복원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시험식재한 결과 구상나무 생존율은 90%에 가까웠다. 영실·선작지왓·사제비동산·만세동산의 구상나무 생존율은 각각 77.8%, 90.1%, 91.8%, 99.5% 등으로 평균 89.8%를 보였다.

제주도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어떤 유전자를 가진 구상나무를 심었을 때 생존률이 높고 다양성을 가져올 것인지 분석해 복원을 하는 것"이라며 "한라산 구상나무 복원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대보기자

## 보롬왓 풍력발전지구 9부 능선 넘었다

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위 부대의견 달고 의결  
음식물 폐기류 처리시설 조성사업은 심사 보류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일대에 21MW급 풍력발전지구를 조성하는 계획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위위원회(이하 농수축위)는 24일 제393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농수축위는 부대 의견에서 지역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주민과 사업 시행 예정 간 협의과정에서 합의안이 마련되면 동의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 사업은 660억원을 들여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일대 99만7946㎡에 21MW(4.2MW급 5기) 규모의 풍력발전지구를 조성하는 것이다. 예상 연간 발전량은 5만2751MWh다.

사업자는 제주에너지공사와 행원리마을회, 향토기업 등 주민참여형으

로 구성될 예정인 특수목적법인 가칭 '(주)제주보롬왓풍력발전'이다. 반면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농수축위는 제주도가 제출한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다.

농수축위는 해당 지역 폐수 처리 문제, 색달하수공공처리장 연계 처리 계획, 악취 영향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 색달동 3만4737㎡ 부지에 사업비 1069억69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자해 하루 340t의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지금은  
마음의 손을 잡을 때

함께 손잡고 건넌  
일상의 소중함을 이제서야 배웁니다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서로를 걱정하고 배려하는  
국민 모두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분명,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의 손을 맞잡은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한국전력 KEPCO 제주본부**



한라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